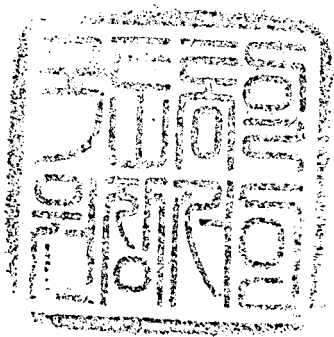


# 北韓의 宗教政策

高 太 宇(北韓研究所 研究委員)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 목 차

1. 서 론 .....	3
2. 종교와 공산주의 .....	6
3. 북한의 反宗教 정책 .....	10
가. 북한의 반종교 논리 .....	11
나. 반종교 정책의 전개 .....	16
다. 반종교 선전의 기능과 실제 .....	23
4. 북한사회의 종교적 성격 .....	29
5. 최근 종교정책의 변화 .....	35
가. 최근의 북한종교 실태 .....	36
나. 「중앙 종교조직」의 활동 .....	40
다. 통일전선과 한국의 종교계 .....	48
라. 남북 종교인 교류.....	52
6. 전망 및 결론	
가. 전망-국경이 없는 신앙 .....	55
나. 우리의 자세 .....	60
〈참고자료〉.....	69



## 1. 서 론

모든 전체주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북한의 사회체제 역시 한 개인의 지도자에 의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양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종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심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종교정책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첫째는 북한이 普賢寺를 비롯한 불교사찰들을 공개하거나 기독교의 성경을 번역<sup>1)</sup> 출판

---

1) 북한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한국의 「공동번역」을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낱말이나 표기법만을 북한식으로 고쳤음을 1988년 11월 스위스 글리온 회의에서 해명하였다.

함으로써 북한 내에도 종교가 실재하고 있음을 외부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향력 있는 해외동포 종교인들을 가족방문 또는 학술회의를 구실로 북한에 초청하여 중국의 가정교회를 모방한 예배처소에 안내하거나 북한 종교계 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88년 11월에는 改新敎의 교회와 천주교의 성당을 신축하여 공개하였다.

셋째는 해외동포 종교인들과 한국의 종교인들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한국교회협의회(K.N.C.C)와의 2차에 걸친 접촉, 바티칸 교황청을 통한 한국 천주교와의 접촉 등이 그것이다.

넷째는 북한의 「중앙 종교조직」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 「조선기독교도연맹」간부의 중국의 ‘公認敎會’ 공식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조선불교도연맹」이 최초

로 釋迦誕辰日(1988)과 成道節(1989)행사를 했으며, 1988년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를 창설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1980년대 후반의 북한의 종교적 상황의 변화는 종교의 실재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및 해외동포 종교인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상과 같은 변화의 양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종교정책에서 開放化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대남 전략의 기본인 統一戰線의 변형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셋째는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唯一的 이데올로기와 宗教敎理의 상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그 이데올로기에 젖은

세대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은 한국의 종교인들에게는 남북의 분단극복에 대한 종교적 관심과 각 종교의 傳敎라는 관심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북한의 종교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종교와 공산주의

1986년 2월에 제정된 소련 공산당의 新강령에 따르면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의 전 인민적 소유와 사회 전 성원이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갖는 계급없는 사회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제도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칼·마르



크스는 공산주의를 “�義(Dogma)가 아니라 운동”이며,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靜的인 면이 아닌 動的인 면을 강조하였다.

엔겔스 역시 “마르크스주의는 사상이나 주의가 아니라 행동의 산 지침”으로, 레닌은 “죽은 교의가 아니며 완결된 불변의 학설도 아니며 다만 행동의 산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철학적, 경제적,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나 평등 복지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의 한 경향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공산주의의 핵심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핵심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지배계급<sup>2)</sup>의 형성을 위해 “부르주아 지배층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의 정권획득”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2) 밀로반 질라스의 신계급(New Class)이론이나 소련의 세습 지배층(Nomenclatura)의 개념

이 혁명과정에서 당은<sup>3)</sup>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일 뿐만 아니라 “전선 요새이고 전투적 조직이며 역사적 필연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당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는 조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 혁명론은 당의 논리나 정책 이외에는 모든 것이 부정되며, 그들이 추구하는 혁명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은 제거되어야 하며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進入<sup>4)</sup>하기 위한 혁명은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신적 요소는 레닌의 말과 같이 “혁명의 원동력은 증오심”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호미와 낫을 가진자”(프롤레타리아트)

---

3) 대중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p.144

4) 공산주의 사회발전단계는 인민민주주의혁명(프롤레타리아트독재)→사회주의 건설→공산주의 사회 임.

와 “물레방아를 가진자” (부르주아지)가 생겨나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양분 되었고 착취자에게 유리하도록 법률, 문화, 종교등의 “상부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반대로 노동과 같은 “하부구조” 즉 “상부구조”의 물질적 토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립의 논리로서의 생산관계와 물질 우선일 때 종교는 “착취계급의 정신적 도구”로 되고 따라서 혁명과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인민의 아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레닌은 “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노동과 빈궁 및 고독에 짓눌린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있는 정신적 압박의 한 형태”이며 “언제나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옹호하고 그들을 마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反動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적인 가치

체계라고 보지 않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외경심 또는 믿음의 감정을 혁명의 반동심리로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心性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감정을 공산  
주의적 품성과 증오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3. 북한의 反宗教 정책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종  
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 정책의  
수행과정 및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소  
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종교와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소멸을 기도  
하지만 베트남, 캄푸치아, 북한의 경우는 처  
음부터 무자비한 탄압으로 종교를 제거하였다.<sup>5)</sup>  
북한은 종교가 “사회적 근원과 인식론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사상의식이므로 그것을 없애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나 강제적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믿고 “사회적 근원”으로써 계급을 없앤다는 미명으로 종교인을 숙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종교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반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을 모두 재판하였고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다.<sup>6)</sup>

## 가. 북한의 반종교 논리

북한의 종교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공산

---

5) 캄푸치아의 경우 “2천8백개의 불탑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비료창고로 만들었으며 8만명 이상이던 승려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극히 소수이며, 수만에 달하던 회교도 가운데 살아남은자는 4명 뿐”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병주: 「사상의 빛과 그늘」 신기원사, p. 50.

6) 김일성저작선집,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1988, p.79.서 인용.

주의에서 항상 주장하는 “종교는 착취계급들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유력한 정신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로자들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sup>7)</sup>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며 착취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종교계 상층 지도자들은 일도 하지않고 거짓 소리만 하고 종교인들에게 하느님에게 바친다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상층 지도자들은 피땀을 흘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화방탕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기생층과 같은 상층 지도자들을 계속 살찌게 할 필요는 없다.”

“불교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인민대중에게 현실에 대한 도피와 계급적 타협과 순종을 설교하며 착취계급에 대한 무저항을 설교하는데 있다.”

“착취계급은 내세의 좋은 생활에 대하여 달콤한

---

7) 이하의 인용문은 「김일성 저작 선집」 1·2권에서 발췌한 것임.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현실세계에서는 고통을 참고 순종하라고 설교함으로써 종교를 근로대중과 계급투쟁을 무마하고 제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장려하고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실도 근로자들을 더욱 용이하게 착취 억압하며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 혁명적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지배자들의 온건한 중으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두번째 부정적 시각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과의 연관성이다. 즉 종교, 특히 기독교를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관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崇美思想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년 동안 진행하였다.”

“침략자들은 천주교 선교사들을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내세웠다. 우리나라에 기어든 천주교 선교사들은 하느님과 자유와 평등을 떠벌리면서 조선인민을 속이며 뒤에 숨어서는 몰래 조선의 여러가지 사정을 탐지하는 간첩 노릇을 하였다.”

“언더우드 2세 이놈은 제 애비의 유언대로 조선의 벼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곧 하느님이니 미국만을 믿으라고 설교하였으며 팔도강산을 좁다고 싸다니면서 구체적인 지형정찰과 정보수집에 미쳐 날 뛰었다.”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어들었던 미제 승냥이 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 떨어진 사과 한 알을 주웠다고 하여 그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崇美事大思想” 또는 “恐美屈從思想” 같은 것을 연관시켜 미국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반종교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번째의 부정적 시각은 김일성 집권초기의



민족진영과 종교인들과의 역학적 관계에서 파생된 관점이다.

“원래 조만식은 해방전에 内鮮一體를 제창하고 학도지원병과 징병제를 적극 지지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일제의 대포밥으로 내오는데 앞장섰던 친일분자로서 해방후에는 재빨리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앞잡이로 된 민족반역자였다”.<sup>8)</sup>

“해방 직후 기독교인으로서 조선 민주당 위원장을 한 조만식은 계속 우리들을 반대하고 책동함으로써 잡아 가두었다가 국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석방시켰는데 계속해서 우리 당을 공격했으며 소위 기독교 재건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출판하여 야단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당을 1958년에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 버렸다.”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욱 곤란하여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당을 싫어하며 당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사실 북한 공산정권이 초기에 토지개혁을

---

8) 평양신문(1987.8.24)은 강양욱 사망 추도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실시한 것도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정권에 반대하는 여하한 단체나 정보망도 전혀 자금 자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지주 엘리트가 반정부 조직에 공급할 우려가 있는 자금원을 제거”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sup>9)</sup> 따라서 조만식을 비롯한 기독교나 천도교 등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도 종교를 속죄양(scape-goat)으로 이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 나. 반종교 정책의 전개

북한은 공산정권 초기에 “북조선 로동당 강령” 8항에서 ‘전 조선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연설대회·시위운동·당조직·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여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공표하였고 당시의 헌법에도 제14조에 “모든 인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9)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년, pp.122-123.

하였다.

그러나 소위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1972년도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없다. 도리어 1972년에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반종교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한편 헌법보다 上位의 규정인 “당 규약”이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다만 10대 원칙 4조 10항에 종교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으로 “혁명사상에 어긋나는 봉건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김일성 혁명 주체사상을 철저히 고수한다”고 밝힘으로써 반종교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진행된 반종교 정책의 진행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시기는 소련군의 군정부터 6·25 동란을 거쳐 주체사상의 틀이 확립되던 1960년대 초로서 외부적인 종교형태가 완전히 제거된 때이다.

두번째 시기는 외부적인 종교형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유일적인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면서 후계체제의 구축, 남·북한간의 대화에 따른 종교문제의 갈등을 겪는 1970년대 말까지로 규정지을 수 있다.

세번째 시기는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국제적인 여론 등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표면적으로 종교형태의 외부적 표출기로서 1980년대를 말한다. 이 세 시기를 각각 종교의 제거기, 종교부재의 갈등기, 종교의 외부적 표출기로 규정할 수 있다.<sup>10)</sup>

### 1) 종교의 除去期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김일성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 6·25 동란이 끝날때까지의 종교정책은 명분상으로는 종교를 허용하면서도 토지개혁과 노동정책을 통한 외형적인 탄압과 인사 및 행정적인 간섭을 통한 내부적인 설득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토지개혁으로<sup>10)</sup> 종교계로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전쟁후에 실시된 반대파의 숙청, 전산업의 국유화, 사상검토 사업은 종교인들을 외면적으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의 피해상황을 보면 불교의 경우, 400여개의 사찰 가운데 일부를<sup>12)</sup> 제외하고는 사라졌으며, 1,600여명의 승려와 3만 5천여명의

---

10) 이러한 구분은 북한의 사상적 흐름이 건국총동원 운동 → 주체사상 확립 → 유일사상 확립에 준한 구분임.

11) 당시 종교 재산은 전 몰수토지의 1.4%인 14,855 정보임.

1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40~50개 정도가 현존하며 북한의 불교도 연맹 간부들은 60여개 정도가 현존한다 함.

신도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기독교의 경우는 1,300여개의 敎會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30만여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명의 신도가, 천도교는 12만명의 신도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하게 제거된 시기는 농민에게 분배되었던 토지가 회수되어 국유화되고,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이 잡혀가고, 김일성 1인지배체제가 확고해지는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과정에서의 종교인들의 저항사례는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없었고 대부분 地下化 했거나 그 정책에 순응하고 말았다.

## 2) 宗教不在의 갈등기

이와같이 외부적인 종교형태가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는 국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데 적지 않은 갈등을 드러내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이 보여준 북한의 종교상황에

대한 관심과 국제사회에서의 종교적 고립 여론이 그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당시 기자들의 종교상황에 대한 인터뷰에서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양욱은 “미제의 폭력으로 교회는 다 없어졌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져 누가 신도인지 알기도 곤란하다”고 하는가 하면 “지방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일성 역시 1971년 東京都 지사인 미노베와의 대담에서 “젊은 사람들은 현대적 교육을 받아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부터 북한은 “중앙 종교조직”들의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각종 국제적인 종교단체에 가입을 신청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3) 종교의 외부적 表出期

종교부재의 갈등기를 거쳐 외부적으로 북한내에도 종교가 실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선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였다.

이 시기에는(현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종교의 존재를 전혀 공개하지를 않고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종교인들에게 중국의 가정교회와 비슷한 예배처소나 普賢寺<sup>13)</sup> 등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1981년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들의 대화”라는 준 종교적인 모임을 개최하면서 해외동포 종교인들과의 교류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의 주목할만한 교류는 기독교의 김성락 목사의 북한 방문(그는 최초로 김일성을 만났으며 한글 성경 200권을 북한에 전달했다)과 천주교 고종옥 신부와의 비밀접촉일 것이다.

또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바티칸교황청과의 접촉과 중재

---

13) 보현사의 복원은 1976년에 시작되었음.



로 남한의 교회와 접촉을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 다. 반종교 선전의 기능과 실제

북한내에서의 종교적인 현상, 즉 종교용 건물, 儀式, 신도의 존재유무 등에 관한 논의와 사실파악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교사찰의 존재와 북한동포들의 의식 속의 종교적 심성,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 상황의 변화들은 그 내용의 변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먼저 불교사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펴 보겠다.

첫째는 건축술의 연구대상 및 文化財로서의 기능이다. 김일성은 “이 절간을 가지고 불교를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슬기로운 건축술의 전통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허위적인 불교교리를 통하여 인민을 기만하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반동적 목적”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찰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에는 “봉건 통치배들의 유흥지”였으므로 이를 되찾아서 인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근로인민들의 즐거운 문화 휴식터” 또는 “소년단의 야영지”로서 활용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또한 “불교의 반동성을 깨우치기 위한 반불교 선전의 학습장소”로서의 기능도 부가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묘향산과 금강산의 사찰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공개되고 있다.

이와같은 변질된 사찰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교적 현상은 地下에서의 종교儀式과 주민들의 意識 속의 종교적 심성의 현실적 실재 여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특성, 그리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종교는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종교는 그 표현양식이 어떠한 개개인이 갖는 자기 심성과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이므로 역사상 어떠한 정치체제도 종교 또는 종교적 심성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종교적인 관념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의식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제조건이 달라졌다고 하여 즉시 변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런데 종교는 보수성이 더욱 강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일단 발생된 다음에는 전통이나 관습의 힘에 의하여 비록 그를 낳은 토대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 잔재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바로 우리사회에 부분적이거나 종교 미신적인 잔재와 편향들이 남아있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14)</sup>

또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體制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종교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적 종교단체들과의 관계상 형식적이거나 종교적 현상들을 保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한동포들은 공산권 선교방송을 듣는다든가 은밀하게 성경을 반입한다든가 북송교포들 간에 종교모임을 갖는다든가 하는 사례들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종교적 현상들은 완전한 국가적 통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변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것들이다.

1980년대의 종교적 상황의 변화가 종교의 허용 또는 신앙의 자유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내부적으로는 반종교 선전을 가속시

---

14)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 로동당출판사, p.19.

키고 있다.

첫째, 북한의 모든 공식 출판물들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다루고 있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이어야 할 각종 사전류를 비롯한 언론매체에는 “종교의 허황성과 비과학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며 긍정적 혹은 객관적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는 모든 정치사상교양을 통한 지속적인 반종교 선전을 하고 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종교에 물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종교의 허위성과 비과학적인 내용을 잘 해설해 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김일성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신문 기타 서적들을 자주 읽으며 영화·연극 기타 서클 공연들을 자주 관람하며 특히 강연회 등에 열성적으로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문학·예술을 통한 반종교 선전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sup>15)</sup>로 간주한다. 따라서 종교를 소재로 하는 문학·예술도 반종교 선전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반종교 혁명연극”이라는 ‘성황당’을 들 수 있다. 1928년 김일성이 직접 쓰고 공연을 했다는 이 연극은 “종교와 미신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약탈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극은 북한의 “5대혁명연극”의 하나이며 序章에 “지구상에는 2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있고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종교도 미신도 완전히 없어지게 된 나라는 영광된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 한 나

15)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579.

라”라고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연극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1천5백여회를 공연하였다는 「로동신문」의 보도<sup>16)</sup>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넷째로 미제국주의와 선교사를 연계시켜 나가면서 반종교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종교 선전은 도리어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의 종교적 측면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북한사회의 종교적 성격

김일성은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종교를 역이용하고 있음은 그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종교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생겨났

16) 로동신문, 1986. 5. 23일자

다.

김일성에 대한 神話的인 표현들 가운데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신다” 또는 “물 위에 종이 한 장을 펴시고 강을 건느신다”, “하늘이 내린 神이다” 등은 인간을 초월한 경지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이때 바위 위에서 강쪽을 바라보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위로 드시며 먼 산을 굽어 보시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맑게 개였던 하늘에 갑자기 안개가 끼며 우뢰가 울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 땅이 뒤집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동안 계속되던 우뢰소리가 그치며 무겁게 내리 드리웠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더니 강 위에 넓은 다리가 펼쳐지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유격대원들을 보시고 왼손으로 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재빨리 다리로 강을 건넜습니다. 유격대원들이 모두 다리를 건넌 다음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리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sup>17)</sup>

흔히 종교는 그 외형적인 형태로 다음과

---

17) 백두산의 장수벌, 금성청년출판사, 평양, 1979. p.34.



같은 요소를 지적한다.

첫째는 초경험적, 초자연적이면서 어떤 의  
지나 규칙을 가진 존재로 믿어지는 神이나  
절대자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神을 초인간적인 형태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神話로 전해지며  
숭배의 일정한 의식이 행해진다. 이러한 의식  
또는 의례는 일상의 경험으로는 체험할 수  
없고 구체적 實在感을 갖도록 만들어져 종교를  
지탱하는 힘을 갖게 한다.

셋째는 신앙을 共有하는 공동체를 갖는다는  
점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 결  
집된 집단을 흔히 敎團이라고 하는데 이는  
승려나 교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신도  
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자기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sup>18)</sup>

이러한 종교의 정의를 현재의 북한사회와  
비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 또는

---

18)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예시한 것임.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제현상을 깊이있게 고찰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들은 초경험적, 초자연적 존재로 인정되는 實在 (The Reality)로서 그 실재는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규칙 또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김일성에 대한 외형적 숭배의 종교적 형태만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의 의식 속에 박혀있는 신앙심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미국천우봉사단 대표의 이북방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주석에 대한 태도가 종교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느껴졌다는 대목이 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그들도 이북 실정을 알고난 다음에는 납득이 간 모양이다.”<sup>19)</sup>

“오늘 나는 이 스타디움에서 김일성 그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히틀러가 나치에 감동한 독일인들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김이

---

19) 최덕신, “민족과 나”, (천리마 86. 1·2월호)

국민적 이상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에 중년의 여인들은 울음을 터뜨리다가 기절까지 했으며 꼬마들은 흥분에 뜻이겨 깡충깡충 뛰었다. 어른들은 광신적인 열정으로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으며 여학생들은 비명에 가까운 기성을 연발하는 것이었다.”<sup>20)</sup>

둘째, 종교의 의식 또는 교리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인 의식과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원칙은 “김일성 권위의 절대화”(3원칙), “교시의 신조화”(4원칙), “교시-집행의 무조건성”(5원칙)인데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3원칙 6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

20) 피터 현, 「북한기행」, 갑진문화사, p.68

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5원칙 1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4원칙 1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3원칙 2행)

김일성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신성시한다는 점이나 절대성을 믿어야 하는 태도 등은 일종의 의식이며 다른 사상이나 관념을 용납치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護教的인 태도인 것이다. 일종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 “유일사상” 등을 북한동포들에게 신념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종교적인 측면인 것이다.

셋째로 신앙의 공동체 문제이다. 모든 전체주의 사회가 그러하듯이 唯一 이데올로기 밑에서 획일적인 意識과 行爲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적 집단이 곧 북한임

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신앙 공동체가 갖는 공통적 현상, 즉 전문가와 신도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교와 북한사회의 비교는 곧 「북한사회=종교」라는 결론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5. 최근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은 북한사회를 유기적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을 구분할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문제는 대체로 두가지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론(선전)과 실제의 차이 또는 인

위적인 이중구조라는 공산주의 속성에서 보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한국의 종교계를 의식한 통일전선적 성격이라는 시각이다.

둘째는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방화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다.

사실상 정보의 제약과 북한의 폐쇄적인 경향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중앙종교조직”의 활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종교계를 보는 북한의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판단에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가. 최근의 북한 종교 실태

종교문제에 관한한 접근 가능한 정보는 해외동포 종교인들의 보고서나 외국종교단체 임원들의 방북 결과 보고서이다. 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자기 종교(특히 기독교)에 국한된 것들인데 미국 교회 협의회의 제2차 방문 보고서는 여러 종교를 망라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sup>21)</sup>

“평양 중심가 부근의 한 불교사원(묘향산 보현사가 아니라 용화사로 판단됨 : 필자)에서 우리는 조선불교도연맹 대표자들과 만났다. 동 연맹의 자문위원 한 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 하면서 한해 전에 미국 교회협의회 초안작성 그룹과 자신이 만난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해 했다. 공화국의 불교도 숫자는 약 1만여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거의 같다고 한다. 승려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부는 규모가 크고 일부는 규모가 작은 사원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sup>22)</sup>를 드린다고 한다. 신도들은 스스로 절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날은 해마다 지켜지고 있다 한다.<sup>23)</sup>(중략)

---

21) 이것은 1987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방문했던 결과 보고서임.

22) 불교적인 용어를 쓰지 못한 것은 아마도 미국인들과 통역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됨.

23) 북한에서 석가탄신일 기념 법회는 1988년이 처음이었음.

우리는 또한 천도교의 대표자들과 뜻깊은 오후 시간을 보냈다. 천도교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토착종교로서 19세기 중엽에 서구사상, 특별히 카톨릭을 통해 유입된 서구사상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대두하였다. 천도교는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적 가치들과 민족주의 그리고 독립을 주장하였다. 천도교도 1910년 일제의 강점 이래로 이에 항거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심한 탄압을 받았다. 1945년 해방당시에 천도교는 3만여 곳에 12만명에 달하는 교인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 근거지는 북쪽 산악지대였다. 천도교도들은 탄압을 피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북쪽 산악지대가 그들의 근거지가 된 것이다. 북한측에서는 북한에는 약 8백여곳의 예배처소가 있는데 그중 33곳은 평양에 있다고 했다.(중략)

대표단은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자들과도 여러차례 만났으며, 평양과 개성에 있는 예배공동체들과도 만났다. 우리는 평양에서는 4개의 가정교회 그룹과 주일 아침예배를 함께 드렸으며, 개성시에 있는 1개 그룹의 가정교회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중략) 연맹은 공화국내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약 1만여명이 있는데 이들 중 약 5천명은 10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한다. 1945년



이전에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카톨릭교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와 같은 교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sup>24)</sup>

기독교의 경우, 신·구약 성경이 1만부가 발간되었고 3년제 신학원도 있으며 봉수동(현 행정구역 명칭은 건국동임 : 필자)에 개신교 교회가, 그리고 장충동에는 카톨릭 성당이 각각 한 개씩 신축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한가지 예를 개신교 신도수에서 찾아 보면 루이제·린저의 방문기에는 800명, 양은식의 “분단을 뛰어넘어”라는 방문기에는 5천여명, 재미동포 박요한의 방문기(신동아 89년 1월호)에는 3만여명, 한국 교회협의회 강문규의 글리온 회의 참관기에는 6천여명 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선 천주교인협회”의 경우, 캐나다 교회협의회 대

---

24) 「플빛 목회」, 1988. 12월호, pp.54-55.

표단은 그 대표자가 문장학이라고 하는가 하면, 1989년 1월에 발표된 북한측 대표자는 정재철이다.

개신교 예배시의 헌금문제, 예배참석자 수의 차이, 불교 사찰의 수등 많은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종교 실태 또는 현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파악이나 그 의도등을 판단하기에는 때가 이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나. 「중앙 종교조직」의 활동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1946. 11. 28 창설), 「조선불교도연맹」(1945. 12. 26),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1946. 2. 1 당시 명칭 천도교북조선총무원), 「조선천주교인협회」(1988. 6. 30 창설)등 4개 단체가 있다.<sup>25)</sup>

그러나 이 단체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이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로동당」의 외곽단체의 산하에 있다는 점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란 통일문제에 대하여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sup>26)</sup>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정치조직이다. 이 조직은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단일한 통일전선 산하에 굳게 결속시켜 우리의 혁명역량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미제를 비롯한 반혁명세력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sup>27)</sup>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종교단체들도 자연히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과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

---

25) 창설일자를 기하여 기념 보고회를 하므로 그 날짜에는 각 종교단체의 활동양상을 추적할 수 있음.

26)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p.616.

27) 앞의 책 p.469

따라 나타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종 종교단체의 연도별 출현상황

단체명	출 현 상 황														
	46	47	48	49	51	54	55	57	60	61	62	63	64	66-72	74 현재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	○	○	○	○	○	○	○							
기독교 민주동맹		○	○	○											
남조선 기독교 민주동맹						○	○								
남조선 기독교연맹									○	○	○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
북조선 불교도 총연맹	○	○	○												
북조선 불교연합회			○												
북조선 불교도연맹				○	○	○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	○	○	○	○	○	○		○
남조선 불교도연맹	○	○	○	○											
북조선 불교총무원	○	○	○	○											
천도교 북조선 총무원				○											
천도교 중앙지도 위원회															○
전국유교 연맹		○	○	○	○	○	○	○							

자료 : 〈내외통신〉 제322호, 1983년 3월 11일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재출현한 데는 당시의 국내외적인 상황 때문

이었는데 남북대화와 세계교회협의회 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 한가지 예로 남북적십자회담 당시 북한측 자문위원에는 김성률(현 기독교도연맹 위원장)과 강장수(천도교 청우당 부위원장)와 같은 종교계(?)인사들이 들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 보아도 大同小異하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조선 기독교도연맹

일 자	활 동 내 용	비 고
1916. 7. 22	북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 결성 산하 사회단체로 활동	북조선기독교도연맹
1948. 3. 25	성명발표(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에 고향)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1948. 4. 30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 성명	북조선기독교도연맹, 기독교 민주동맹참가
1974. 2. 4	비상군법회의와 관련 종교인을 탄압한다고 비난성명.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
1974. 2. 15	남조선종교인과 해외조선인종교단체와 세계각국종교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한국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비난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명의(3개종교단체)

일 자	활 동 내 용	비 고
1974. 2. 27	서해어선납북사건(1974. 2. 15)과 관련, 대남비난성명	
1974. 6. 3	한국의 「6·3」사태기념 사회단체 연합성명에 참가	
1974. 7. 15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대남 비난 성명	
1974. 7. 20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세계 각국 종교단체들과 종교인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3개의 종교단체공 동명의
1974. 8. 2	세계교회협의회(W·C·C)가입 을 획책했다가 좌절	
1974. 8. 20	민청학련사건 재판과 관련, 대남 비난성명	
1975. 1. 9~ 1. 14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인도 곳 따 암)에 참석,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국 비방	
1975. 2. 8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부위원장 김성률 국민투표와 관련, 종교인을 탄압한다고 비난담화	
1975. 4. 26	유신체제와 종교인에 대한 탄압과 관련 비난성명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명의
1976. 3. 8	3·1민주구국선언과 관련비난성명	〃
1976. 8. 7	민주구국선언 관련자재판에 대한 비난성명	〃
1976. 11. 28	기독교도평화회의 정치경제토론회 한반도에 관한 결의와 성명채택	기독교도연맹 중앙 위원회 대표참석
1977. 2. 6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1. 25)지지 성명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
1978. 2.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성명 (1. 23)에 대한 지지 담화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위원장김성 률담화

〈표 2-2〉 조선 불교도연맹

일 자	활 동 내 용	비 고
1946. 7. 22	북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 결성 산하 정당사회단체로 활동	북조선불교 총연맹
1948. 3. 25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에 고향 성명발표	
1948. 4. 30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서	〃
1948. 4. 3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북미합중국정부에 보내는 남북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요청서	〃
1973. 8. 31	박형규목사 등 체포에 따른 비난 성명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안숙용위원장 명의
1974. 2. 15	「남조선」종교인과 해외조선인 종교단체와 세계종교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 한국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비난	3개종교단체공동 명의
1974. 2. 28	서해어선납북사건(1974. 2. 15)과 관련, 대남비난성명	
1974. 4. 13	제일조선인불교도연맹 경기대회를 축하하는 전문 발송	
1974. 5. 3	한국의 「6·3」사태기념 사회단체 연합성명에 참가	3개종교단체 공동 명의
1974. 7. 20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세계각국종교단체들과 종교인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在日조선인 불교도연맹이 일본 대표 일환으로 참석 활동
1974. 11. 1~ 11. 3	제3회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조총련을 참석시켜 「남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케 하여 한국비방	
1976. 7. 26~ 7. 28	제4차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동경)한반도에 관한 특별결의문 채택	조총련불교도연맹 위원장 장태성참석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 명의
1977. 2. 7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1. 25) 지지성명	
1979. 1. 31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 성명(1. 23)에 대한 지지성명	〃

### 〈표 2-3〉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일 자	활 동 내 용	비 고
1974. 2. 15	남조선종교인과 해외조선인 종교 단체와 세계종교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 한국 유신헌법과 긴급 조치비난	천도교 중앙지도 위원회(3개 종교단체공동명의)
1974. 2. 27	서해어선남북사건(74. 2. 15)과 관련. 대남비난성명	
1974. 7. 20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세계각국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발표 * 정당인「천도교청우당」이 있어 종교단체로서의 정치적 활용은 비교적 적음	

출처 : 북한 연구소편, 「북한총람」 p.1237.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모두가 대남정책과 관계된 것들이거나 「로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 채택등인 것이다.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라는 모임도 사실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라는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것이며, 1988년 스위스 클리온에서의 남·북 기독교인과의 만남도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모임”이라는 명칭처럼 정치적인



것이다.

또 이 종교단체의 주요 간부들도 종교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북한에는 그동안 종교가 없었던 상태였었고 그들의 경력이 종교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현재의 기독교연맹 위원장인 강영섭은 강양욱의 아들인바 그의 전직은 판사였다가 1989년에 현직으로 옮겼다.

어쨌든 이들 종교단체들은 북한 자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김일성이 사회안전부에 지시한 비밀교시가 그것이다.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에 종교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는가하고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왜 믿지 못하게 하는가고 묻곤 한다.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허용하지만 인민들이 각성되어 믿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하지만 중앙 종교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sup>28)</sup>

## 다. 통일전선과 한국의 종교계

북한의 통일관은 “우리나라에서의 국토와 민족의 통일문제는 단순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제에 의하여 빼앗긴 남녘 땅과 남조선 인민들을 식민지 속에서 해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혁명의 문제”로 인식한다.<sup>29)</sup>

이러한 “혁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술로서 “지하당 전술”과 “통일전선 전술”을 제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하나를 택하기도 한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전선을 실현시키기

---

28) 필자가 쓴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p.128

29)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사회과학 출판사, p.187

위한 조직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다. 이 조직이 추구하는 통일전선의 개념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일정한 혁명적 단계에서 해당 혁명의 승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이며…로농동맹의 기초하에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균중을 결속시키는 것”을 뜻한다.<sup>30)</sup>

이러한 개념에서 북한에 치중하고 있는 통일전선의 기본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역량의 확보”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의 대상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노동자 농민이며 “보조역량”은 “청년학생, 인텔리, 도시 소자산계급, 양심적 민족자본가, 민족적 양심을 가진 개별인사, 애국적 군인”등인 바 종교인은 개별인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통일전선 형성조건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30) 정치용어사전, 평양, 1970, p.615

“오늘 남조선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를 비롯하여 120여종의 교파와 5만3천여명의 교직자, 1,795만여명의 신도가 있다. 신도의 대부분은 각성되지 못한 근로인민들이며 상층 종교계 인사들 가운데는 하층 신도들과 함께 현 군사 파쇼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중략)

그러므로 이들에게 민족애의 정신을 넣어주고 점차 이에 계급교양, 정치선전을 배합한다면 능히 그들을 각성시키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대오에 들어서게 할 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적극적 작용을 높이어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sup>31)</sup>

이 조건을 잘 활용하여 종교인 개개인에 대해 침투 포섭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하층 종교인 즉 일반신도에 비중을 두고 반제 및 계급교양을 강화한 후 종교교리의 반동성을 계몽하고, 둘째는 종교교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교파 동향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셋째는 상층 종교인, 즉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업은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 각 개인의

31) 허종호, 앞의 책, p.114

사상적 약점과 동향에 근거, 혁명 수행으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공산주의의 전통적이고 교과서적인 전략 전술의 형태인 통일전선의 구현체임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상인 한국의 종교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첫째의 관점은 한국의 모든 종교를 美帝의 문화적 식민지로 보는 것이다.

“미제는 오늘도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데 종교를 중요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와 반동적 통치배들의 적극적인 조장밑에 각종 종교단체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숭미사대주의, 몽매주의를 고취하고 인민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다.”<sup>32)</sup>

둘째는 통일전선 형식의 좋은 조건으로서 교파의 다양성과 반체제적 성향을 들고 있다.

---

3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종교항목, 1970 p.573.

“반미구국통일전선 운동에서 종교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과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조선의 현실적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중략)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적지않은 종교인들이 美·日 제국주의의 폭압에 불만을 품고 반외세·민족·자주성, 군사파쇼독재반대, 언론·신앙의 자유등의 구호를 걸고 민족·자주·반파쇼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sup>33)</sup>

북한의 종교단체들의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한국의 종교계를 분열시켜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려할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라. 남북 종교인 교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의 종교단체들의 남한 또는 해외동포 종교인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의도는 「통일전선 형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접촉에서 가장 앞선것은 기독교계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KNCC」와 북한의 「기독교도 연맹」 1986년부터 모두 4차례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만남은 주로 WCC의 주선에

33) 허종호, 앞의 책, p.113

의한 것이었고 이 단체의 미국, 캐나다등의 NCC  
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다.

또한 남북 기독교계의 접촉에 앞서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라는  
긴 이름의 모임을 1981년부터 3차례 진행한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의 기독교 단체들은  
공산권 또는 북한선교를 내세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불교계 역시 재미동포 스님의 2차에 걸친  
북한 방문을 통해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천주교역시 로마교황청의 정책과 주선으로 고  
종욱 신부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장충동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바 있었다.

천도교는 남북교류에 적극성을 띠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등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세계성체대회」나 불교의  
「한강 연등제」, 기독교의 「평양복음화대회」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는 석연치 않은점이 많았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초청했지만 그들은 끝내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고 방송등을 통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 천도교 교령이었던 崔德新(사망)을 갑자기 만든 「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내세워 남북종교인회담을 제안하였다. (1989년 6월 2일) 제안내용역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과 민족의 화해”로 못박은 것이었다.

이러한 남북종교인의 교류문제에서 확실한 것은 북한측은 대규모의 종교적 집회나 접촉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계 지도자들이나 개인대 개인간의 교류는 적극적 이면서도 신도들과의 교류나 접촉 또는 집회적인 성격의 교류나 접촉은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종교를 통한 자유 또는 개방 물결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내의 다양한 종교, 종파간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인협의회」를 급조해서 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종교계가 모두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더구나 崔德新은 한국의 종교인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그 단체에는 한국최대의 교단인 개신교와 천주교가 망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남 북간의 종교인 교류나 접촉의 형태는 한국 종교계가 바라는 傳教등의 종교적 태도를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한적이고 개별적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포기라는 전제하에서만 진정한 남북 종교인교류가 원활해질 것이다.

## 6. 전망 및 결론

### 가. 전망—국경이 없는 신앙

북한은 앞으로도 “남조선으로 부터 침습해

들어오는 사상과 특히 공화국 북반부에 아직 남아서 준동하고 있는 일부 악질 종교인들이 종교의 간판 밑에 반혁명적인 행위를 조작하며 종교적 사상을 우리들 속에 부식시키려는 기도와 철저히 투쟁할 것”<sup>34)</sup> 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김일성은 “우리 당의 사회안전정책에는 종교인들에 대한 처리방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나이 많은 늙다리 종교쟁이들은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친다. 그러니 그들은 무자비하게 없애 버려야 한다. 그리고 철없는 젊은이들이 종교에 물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종교의 허위성과 비과학적인 내용을 잘 해설해 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악질은 제거하고 피동분자들, 특히 적대계층 출신자들인 경우는 모두 수용소에 가두도록 하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종교는 그 교리나 형태가 어떠한든 간에 다른 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민족의

34) 정하철, 앞의 책, p.10

35) 필자가 쓴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p.81

역사, 사회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오늘의 북한에는 한 支配者의 편견과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外形的으로는 종교가 없어지고 말았지만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종교적 또는 신앙적인 전통과 심성까지 완전하게 공산주의적으로 “改造”되었다고 보기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역사는 너무 짧은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同質性의 회복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傳敎의 의지나 교류를 위한 考慮는 북한동포들의 의식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들에게 집단주의적 원칙 밑에서 黨性이라는 평가기준 속에 살아가기를 강요한다. 따라서 이들은 조직지향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적인 인간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는 획일적 사고와 집단에서의 일탈을 두려워하는 불안의식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북한동포들 가운데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정신적 갈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요인은 종교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동포의 일반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순성, 의존적이고 굴종적인 성향, 권위주의적 성격, 강한 충성심과 금욕적인 성향등은 모두가 종교적인 심성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는 계층간의 심리적 갈등의 경향이다. 당원과 비당원, 관리계층과 근로계층, 기본계층과 복잡계층,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에는 어떠한 종교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지만 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리적 소지는 사회 자체의 모순 때문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적인 화해 무드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움직임, 즉 개방화의 조짐에 따른 종교인간의 교류 또는 전교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종교계는 남북관계의 대화 또는 교류의 분위기에 편승한 교류의 모색을 서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는 그 물꼬를 스위스 글리온에서 튼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종교적인 관계에서 통일전선적인 차원 이외의 움직임은 발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김일성의 고령과 김정일의 통치체제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는 종교계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방화 정책이 북한동포들에게 미치는 통치상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교묘한 통제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 또는 신앙의 속성은 역사적으로 국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민족이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나. 우리의 자세

이제까지 북한의 종교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종교가 없는 宗教史를 쓰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만나려 한다.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를 발견한 주인이 고함을 지르자 도둑은 달아났다. 용감한 이 집주인은 도망가는 도둑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뒤쫓아 뛰어나갔다. 얼마를 달렸을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에 뛰고 있어야 할 도둑이 보이질 않았다. 깜짝 놀라 숨을 모아 쉬며 앞과 뒤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니 도둑은 자신의 뒤에서 뛰어 오고 있었다.

도둑을 잡으려는 주인의 용감한 결단과 행동은 옳았는데 목적과 목표를 잊어 버린 것이었다.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1988년 7월 7일의 특별선언은 최근의 들뜨는 듯한 백가쟁명식의 제반 통일논의를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과거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고 전혀 새로운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언 1항 즉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와 해외동포의 자유왕래는 통일의 기초단계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 분명한 남·북간의 인적교류 가운데 諸 종교 또는 종교인이 맡아야 할 역사적 소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것은 종교의 부재, 신앙의 불모지대를 만들어낸 북녘 땅에 새로운 종교적 심성을 심어야 할 소명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증오와 불신으로 이어져온 남·북간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인 본래의 사명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에 큰 몫을 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여러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북한의 종교정책은 변화의 실마리를 보여 주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북한이 조심스럽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는 한국과 외국의 비판을 의식하고 교류에 대비한 선전 또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의 의미를 직접 확인하기에는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지만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측면이나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는 그러한 시각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의식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남한의 종교계는 통일논의와 더불어 북한의 종교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가지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한국 교회협의회(K.N.C.C)의 선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의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각 교회가 저마다의 특성을 내세운 統一과 傳教 논의에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조급함과 민족적인 감정만을 앞세운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을 추진하거나 傳教



的인 차원만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염려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현재 전교적 차원에서의 각종 조직과 단체들의 북한의 종교 정책 또는 종교상황에 대한 연구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와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깊은 연구의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내세우는 자료의 제약, 정보의 독점만을 탓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분단 이후의 북한에 관한 범 종교적 시각의 연구나 북한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저술들이 없었다는 점, 또는 공개적인 학술적 토론 같은 것이 없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북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서적의 출판도 이루어지고(정부의 허가는 없지만)있는 시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종교인들의 만남 또는 전교를 위한 종파간의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는 각 종파나 단체간의 정보및 전략 구상에 관한 의견교환 그리고 대북제안의 단일화를 위한 통일된 견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종파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를 망라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의 구성같은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종교, 종교인, 종파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알력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의 예는 기독교 안에서는 K.N.C.C 선언의 파문, 더 나아가서 종교간에는 1985년 고향방문단 구성시 불교계의 소외같은 문제들이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의 하나인 통일전선 전술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들의 저의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오늘날 남반부에는 아직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을 다 죽인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하지만 중앙 종교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7·7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모두가 이를 환영하고 있을 때 북한의 「남조선 연구」 관계자들은 아마도 통일전선형성의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남·북간의 교류를 둘러싼 각계의 통일논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등으로 전국의 열기는 민주화의 목소리 못지 않게 뜨거워진다.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욱 적극적이고 한걸음 앞서가고 있다. 북한바로알기 캠페인에서부터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모임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공동예배 주장 또는 헌금·성물 보내기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직접대화 및 상호교류를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운데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 세계교회협의회, 미국교회협의회, 카톨릭의 경우는 바티칸등의 중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회답이라도 하는 듯이 북한은 금년에 들어서서 교회와 성당의 신축, 그리고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등의 뉴스를 조심스럽게 흘려 보내고 있다. 그리고 카톨릭의 경우는 바티칸과의 비밀접촉을 해가면서, 기독교와는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대화에 응해 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종교정책의 변화(그것은 종교관의 변화라고 읽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에 종교인들로서는 반가워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전후좌우를 한번쯤은 조심스럽게 살펴보려는 마음가짐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종교상황은 이질적인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多宗教 사회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종교나 교파의 독자적인 교류추진 또는 전교의 경쟁은 조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의 종교정책이 순수한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사실상 공산주의 이론이나 로동당의 정책은 계급위주이지 민족이 아님)이나 통일이라는 미명 속의 정치적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라는 점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고찰한 바가 있음). 북한은 여러 갈래의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전략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흐름만을 골라서 카운터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세계교회협의회나 바티칸등 외부 세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세이다. 이땅의 각 종교, 종교인들의 성숙도나 민족적 의식을 감안해 볼 때 아무리 그들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야한다는 자주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각 종교 상황에 대해 외부의

정보를 더 신뢰하려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포기하는 것 같은 자세, 그리고 북한교회를 돕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고 외부자금이라는 문제등도 그러한 단면의 하나일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외세를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조시대의 黃祠永 帛書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도둑을 잡으려고 뛰는 것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둑을 똑바로 쳐다보고 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 〈참고자료〉

# 북한의 종교단체 현황

### 1. 조선불교도 연맹

○ 창설일자 : 1945년 12월 26일

○ 당시 연맹원수 : 375,438명

○ 강령 :

- 1) 전 조선불교의 통일단결과 신앙자유의 확보를 기함.
- 2) 교단 자체의 혁신을 단행하며 대중을 교화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을 촉진함.
- 3) 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제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같이하여 세계 민주주의 이념의 관리를 기함.
- 4) 불타 정신을 선양하며 사회사업 문화사업의 향상 발전을 기함.
- 5) 불교도의 노동정신을 양양시켜 국가산업 경제부흥 발전사업을 협조함.

### 〈현황〉

- 연맹위원장 : 박태호
- 연맹원수 : 약 1 만 명
- 승려수 : 약 300명
- 사찰수 : 45개소(조선중앙연감통계)  
불교유적 38점(조선중앙연감통계)

## 2. 조선기독교도 연맹

- 창설일자 : 1946년 11월 26일
- 당시 연맹원수 : 85,118명
- 강령 :
  - 1) 기독교의 박애적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건국사업에 일차 협력할 것.
  - 2) 민주조선 건국에 해독인 죄악과 항쟁하고 도의 건설을 위하여 분투할 것.
  -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 4)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



○ 조직목적

- 1)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 2) 사회단체나 정당들과의 친교를 맺는다.
- 3)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참여한다.
- 4) 조국통일을 위해 일한다.
- 5)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전세계의 모든 개인 및 조직과의 접촉을 갖는다.
- 6)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연맹위원장 : 강영섭

○연맹원수 : 약 1만명

○교회수 : 2개 (봉수교회, 반석교회)

\*가정교회 : 약 200개소

○교직자수 : 목사 약 20명

전도사 · 장로 약 200명

○교육기관 : 조선 신학원 1개소(3년제)

### 3. 조선천주교인 협회

○창설일자 : 1988년 6월 30일

○연맹원수 : 약 300여명

○협회장 : 정재철

○ 협회발족 취지(요약)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 데서나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한성이 있었음.

교회의 발전과 권익옹호 및 신자 호상 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친선 도모.

○ 조직목적

- 1) 천주교인들의 자유와 진리를 보호하여 준다.
- 2) 애국적사상으로 천주교인들을 교화시킨다.
- 3) 천주교인들이 전국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한다.
- 4) 국가의 번영과 평화적통일을 위해 함께 일한다.

4.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 1946년 2월 1일 천도교 북조선 총무원 발족

○ 1974년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로 출현.

\* 천도교 청우당은 계속 존속하였으며 세부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음.

○ 교당 : 약 800개소.

## 5. 종교협의회

○ 1989년 5월 30일 발족

○ 1989년 6월 2일 남북 종교인 회담 제안

○ 위원장 : 최덕신 (사망)

(주 : 각 연맹의 강령은 창설 당시의 것으로 현재의 강령은 입수된바 없음.)

北韓의 宗教 政策 (국통연 90-1-2)

---

1989年 3月 4日 初 版 發 行

1990年 1月 30日 修 正 版 發 行

發 行 處 :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 話 : 234-4102

---